

성공적인 탄소중립 위해 두마리 토끼 잡자

제민포럼



신우석
비상임 논설위원

■ 옥상녹화·태양광 동시

변경된 가이드라인을 적극 수용하고 활용해 기존·신규 옥상에 녹화 사업 및 태양광 패널 설비 개선 및 확대를 추진해서 에너지·탄소 저감과 더불어 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나 국내외적으로 기후위기와 불릴 정도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이들에게 강한 인식을 주고 있다. 따라서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지구적인 움직임도 한층 더 다양해지고 강화되는 실정이다.

특히 공간적인(건물분야)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관리의 중요성은 한층 더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건물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전략으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했다. 건물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70%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에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달성(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2.8% 감축)하기 위해 무엇보다 건물 온실가스 감축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조기 도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스마트 에너지 관리 등 건물 분야에 있어 탄소 저감의 활성화를 극대화하고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2030 국

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 1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의 단열 및 에너지 성능 향상,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건물에서 옥상정원 및 벽면 녹화도 지속가능한 탄소감축의 주요축으로 꼽힌다. 지금까지 알려진 건물 옥상녹화의 기능을 보면 여름과 겨울에 각각 냉방(기존 건물보다 4~5도 정도 온도 낮춤)과 보온 효과를 통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여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역할과 다양한 식생을 통한 탄소 흡수원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토양생태계 복원, 도시열섬 현상의 완화, 우수유출 일시 완화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최근까지 건물 옥상 활용을 고려할 때 녹화를 통한 탄소흡수 기능과 태양광 설치를 통한 전력 생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즉, 옥상녹화와 태양광 설치 사이의 효율성 등 문제점이 부각됐던 것도 사실이다. 최근까지 옥상 공간 활용에 있어 태양광 시설을 적용하

기 위해 기존 옥상녹화를 걷어 내거나 옥상녹화 사업이 태양광 사업에 밀려 무산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이라 한다)은 개정된 조경기준에 따라 옥상녹화와 태양광 패널 설치를 병행 설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설비 병행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건설연)을 마련했다.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시의 유효공간으로서 도시 건물 옥상의 공간적 활용도를 높이고 에너지 생산과 탄소 흡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따라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가이드라인을 적극 수용하고 활용해 기존 및 신규 옥상에 대해 녹화 사업 및 태양광 패널 설비에 대한 개선 및 확대를 추진해 에너지 및 탄소 저감과 더불어 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탄소저감 정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이 보다 빨리 이뤄지길 기대한다.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

사설

지방보조금사업 평가 신뢰도 높여야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익성 등 권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단체, 개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부활 후 증가하는 지역민의 행정수요 충족 및 지역발전, 주민복지 향상 등을 위해서다. 하지만 선심성 사업 배분, 부정수급 문제 등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지적이 적지 않다. 최근에도 정부는 과거 부정 수급이 적발되거나 유사·중복, 성과 미흡 지방보조사업을 폐지 또는 최대 50% 이상 삭감토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제주연구원도 최근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주도 지방보조금사업 평가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매년 보조금의 긍정적 효과로 교부 규모가 증가하는 반면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과다, 평가 전문성 부족, 평가지

표 배점 기준 모호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보조금관리위원회만 해도 위원 1명당 200여건씩 연간 3000건 이상을 심의함으로써 심층적인 평가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제주연구원의 지방보조금사업 평가시스템 개선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특히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충실한 평가를 위한 심의대상사업 축소는 시급한 사안이다. 또 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계획서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등 경영실태 평가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공민화를 통해 지역 현실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발굴하고 전문적으로 분석, 그 결과를 환류할 때 지역발전 등 지방보조금의 본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신뢰성 잃은 4·3평화재단 장학사업

4·3평화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고등학교와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및 유족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학구열을 높이고 있다. 장학금은 지난 2011년부터 10억원 목표로 자체 적립한 기금의 이자 수입으로 활용된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기금 적립액은 현재 17억4789만원으로 파악됐다. 재단측은 지난 2020년 3월11일 이전까지는 해당 기금 전액을 급리가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운영·관리했다.

하지만 재단이 장학사업을 부적절하게 운영·관리하다가 감사당국에 적발돼 실망스럽다. 2020년 3월11일 이후에는 전체 기금의 94.3%인 16억4800만원을 원금 손실 위험이 큰 보험상품에 가입했음에도 이사회와 제주도에는

안전한 일반예금에 예치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것이다. 심지어 공정하지 못한 심사로 장학생 탈락자도 발생해 어안이 병병하다. 2020·2021년 2년 동안 심사기준과 다르게 배점을 잘못 부여한 결과 대학생 2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

감사위원회가 기관경고·훈계 처분을 내렸지만 장학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재단측의 후속조치가 시급하다. 경기 약화나 운용사 능력 부족으로 자칫 수익이 감소할 수 있음에도 위험상품에 투자한 것도 그렇지만 허위로 보고한 것은 전적으로 이사장 책임이다. 특히 잘못된 심사로 탈락한 장학생 2명의 구제방안은 물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업무역량 강화는 물론 검증시스템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독자기고



한윤아

농촌융복합사업 희망 청년농업인에게

요즘 농업에 관심 갖고 도전하는 청년들이 많다. 특히 농산물 생산에 그치는 1차형 농업을 넘어, 농산물을 활용한 카페, 가공, 체험 등 융복합사업을 통해 가치를 만들려는 젊은이들이 많다. 재능을 발휘해 성공한 이도 있지만 해매는 이가 많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청년들에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융복합사업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오는 29일부터 9월 14일까

지 3회에 걸쳐 운영한다.

청년농업인은 자신이 운영할 융복합사업장의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3일 동안 도내 모델링된 융복합사업장을 방문하며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그 의견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 운영상 고충, 가져야 할 마음가짐 등이 포함된다. 청년농업인은 그들의 경험을 자신의 계획과 비교, 검토 후 본인의 운영 계획을 구체화하고 보완한다. 이렇게 만든 운영 계획을

표시하며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남의 지갑에 있는 돈을 내 지갑에 넣는 것이다. 농사도 어렵지만 농산물로 사업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럼에도 농업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무한한 잠재력의 청년들이 역량을 풀어낸다면 농업의 가치는 배 이상 발휘 될 것이다.

농업에 도전하고자 발을 들인 청년들이 정착해 농업 발전에 힘이 되길 바라며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많은 이가 참여해 성공하길 기대해본다.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팀장>

농업의 가치는 무한하다. 파종하고 관리·수확해 먹거리를 만드는 것에서 농산물로 제2, 제3의 소득을 만들 수 있고, 아름다운 경관, 치유 기능까지 많은 가치가 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김해강공 오주(향년 63세) 喪時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뵈움이 도리어오나 경황이 없어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 8월 21일

배우자 이해은
아들 김수완
동생 김용천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성주배공 성복(향년 63세) 喪時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뵈움이 도리어오나 경황이 없어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 8월 21일

배우자 현연숙
아들 배진범
딸 배은경

옥·내의 종합광고물 제작

제주아이

JEJU Advertising

010-2664-8563

관련문의

광고부

간판 / 실사
현수막 / LED

시설부

조경시설 / 안전
철구조물

신축 리모델링

황토주택

편안함은 물론 건강까지

황토주택 시공분야

- 신축·리모델링: APT, 주택, 한식당, 펜션, 호텔
- 이동식 황토방(침실방) 제작 판매: 기본주택 방문 환영

☎ 견본주택: 제주시 노형동 3494-2 [월산부락 내]

문의전화 ☎ 010-4146-7802

황토 찜질방의 효능

- 비드: 황토다리석(두께11mm) 한자장판
- 천정, 벽: 황토, 관백나무 (방 온도/습도: 40℃ - 온도조절)
- 원적외선 방출
- 피로치드 발생
- 음이온 발생
- 체온 노폐물 제거, 피로회복
- 향균, 탈취
- 세포조직 활성화
- 신진대사 촉진, 성인병 예방

「항상 고객과 함께하는 부경기업 이 되겠습니다」

내 차 관리

자동차 안전주행을 위한 배터리, 타이어, 에어컨, 엔진오일 무료점검을 받으러 보건소사거리 세방전지로 오세요.

세방전지 영업안내

3급공업사 (자동차전문정비)

로켓배터리 제주총판 (차량용, 오토바이용) 차량용 배터리 최저가교환 본점

금모타이어 지점가 할인 교환

산업용 배터리 전문점 (전기실, 전산실용)

전기공업사 (관급조달공사)

정보통신공사 (UPS설치, 유지보수)

폐기물 (폐배터리) 수집 운반업

✓ 토요일 정상 영업 (일요일 휴무)

Since 1998

로켓배터리총판 세방전지

제주시 오남로 29, 제주보건소사거리 북쪽 코너 지하 1F

대표 고경택 ☎ 064)702-8282

과실의 어머니 **코리스**

어머니의 풍속처럼 과실 하나를 소중하게 지켜드립니다.

주요 방제 병해

- 감귤
- 다랭이병
- 갯빛곰팡이병

※ 적용대상 [감귤]다랭이병, 갯빛곰팡이병 [딸기]갯빛곰팡이병 [마늘]혹색씨름균병 [수박(복수박포함)]영굴마름병 [감(단감포함)] [고추(단고추류포함)] [대추] [매실] [배] [복숭아] [사과] [오이] [참외] [포도] [호박(단호박포함)]

다랭이병, 갯빛곰팡이병 확산 예방 및 치료효과 침투이행성 및 침입성 우수 광범 및 잔여에 의한 IPM용 종합살균제

코리스

성보화학 고적상업전화 1833-3221

다랭이병, 갯빛곰팡이병 전용약

※ 사용 전에 표기내용을 확인하여 표시사항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고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으시오. * 농약의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농약관리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되며, 직할금 수형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